

석 사 학 위 논 문

경력단절여성의 직무교육이
창업과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 창업, 재무, 사무자동화 직무교육을 중심으로 -

2014년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매니지먼트컨설팅전공

박 기 인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임옥빈

경력단절여성의 직무교육이 창업과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 창업, 재무, 사무자동화 직무교육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areer-Interrupted Women's Job
Training on Business Start-up and Re-Employment

201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매니지먼트컨설팅전공

박 기 인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임옥빈

경력단절여성의 직무교육이 창업과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 창업, 재무, 사무자동화 직무교육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areer-Interrupted Women's Job
Training on Business Start-up and Re-Employment

위 논문을 컨설팅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매니지먼트컨설팅전공

박 기 인

박기인의 컨설팅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경력단절여성의 직무교육이 창업과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 창업, 재무, 사무자동화 직무교육을 중심으로 -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매니지먼트전공

박 기 인

본 연구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창업과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중에서 직무교육 특히 창업관련교육과 회계세법교육 그리고 사무자동화교육을 통한 영향요인들을 분석하고 그러한 요인들이 경력단절여성의 창업과 재취업성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력단절여성의 사회로의 복귀에 대한 선행문헌들을 토대로 노동시장으로의 복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직무교육을 통해서 창업 및 재취업이 활성화되었을 때 그러한 요인들이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문에 의한 사회통계학적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성과 영향요인들로는 창업관련 직무교육, 회계세법관련 직무교육, 사무자동화관련 직무교육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대한 성과는 창업의지와 재취업의지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창업지원교육 및 회계세무교육 등의 만족도가 향상될수록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및 재취업의지는 유의적으로 향상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의 직무교육 만족도는 창업 및 재취업의지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및 재취업의지에 직무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 특히, 창업지원교육과 회계세무교육이 경력단절여성의 전체적인 창업 및 재취업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의 사회로의 복귀에 관련된 다양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경력단절여성, 직무교육, 창업, 창업의지, 재취업, 재취업의지, 통합의지 등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6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7
제 1 절 경력단절여성의 이해	7
1. 경력단절여성	7
2. 노동시장으로의 복귀	9
3. 직무교육	9
제 2 절 선행연구	12
1. 고용시장의 특성과 경력단절의 원인	12
2. 경력단절여성의 직무교육 프로그램	13
3.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으로의 복귀 결정요인	14
제 3 절 선행연구와의 관련성 및 차별성	17
제 3 장 연구모형 및 가설	18
제 1 절 연구모형의 설계	18
제 2 절 연구가설의 설정	19
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23
1. 독립변수	23
가. 창업관련 교육요인	23

나. 회계세법관련 교육요인	23
다. 사무자동화관련 교육요인	24
2. 종속변수	24
가. 창업의지	24
나. 재취업의지	24
다. 창업과 재취업의 의지	24
3. 설문지 구성	25
제 4 장 실증분석	27
제 1 절 표본조사 범위선정, 구성과 수집	27
제 2 절 연구대상의 기술적 통계분석	28
1. 경력 근무 기간	28
2. 퇴직사유	29
3. 창업의 사유	29
4. 재취업 사유	30
5. 연령별 분포	31
6. 학력 수준	31
7. 직종	32
제 3 절 변수의 신뢰성 분석 및 요인분석	33
제 4 절 실증분석 및 가설검증	36
1. 요인분석	36
2. 회귀분석	36
가. 전체 직무교육의 영향	36
나. 개별 직무교육의 영향	38
다. 결과의 종합	40
제 5 장 결 론	41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41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42
 【참고문헌】	44
【부 록】 설 문 지	47
ABSTRACT	52

표 목 차

[표 I -1] 2012년 주요국별 남녀경제활동참가율	3
[표 I -2] 2012년 주요국별 인간개발지수	3
[표 I -3] 2012년 주요국별 제조업 남녀임금격차	3
[표 I -4] 2008년 연령·교육정도별 아내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	4
[표 II -1] 대학 졸업자 취업률	8
[표 II -2] 대졸자 경제활동참가율	8
[표 II -3] 교육훈련 분야별 교육대상	10
[표 II -4] 여성능력개발기관에서의 서울시내의 지역별구분	14
[표 III -1] 변수에 관한 설문지 구성	26
[표 IV -1] 설문응답자의 취업경험유무	28
[표 IV -2] 설문응답자의 취업 경력 근무기간	28
[표 IV -3] 설문응답자의 퇴직 사유	29
[표 IV -4] 설문응답자의 창업을 원하는 사유	30
[표 IV -5] 설문응답자의 재취업을 원하는 사유	30
[표 IV -6] 설문응답자의 연령분포	31
[표 IV -7] 설문응답자의 학력분포	31
[표 IV -8] 설문응답자의 직종	32
[표 IV -9] 신뢰도분석 및 요인분석 결과	34
[표 IV -10] 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결과	34
[표 IV -11] 전체 직무교육이 창업 및 재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37
[표 IV -12] 개별 직무교육이 창업 및 재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38

그림 목 차

[그림 I -1]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추이	2
[그림 I -2] 주요선진국과의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2
[그림 I -3] 2008년 연령별 아내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	4
[그림 II -1] 여성능력개발기관의 직업훈련 대분류	10
[그림 II -2]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활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	14
[그림 III -1] 연구모형도	18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10년대 한국의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총GDP가 1970년대에 100억 불로 세계 30위권 밖이었는데, 2012년에는 1조1600억을 달성하여 세계 15위를 달성하였고 1인당 GDP또한 2만 3,679달러를 기록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IMF,2012)¹⁾

경제수준에 비해 한국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매우 저조하여 [그림 I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도에 50%를 겨우 넘어서기 시작했으나 2007년 이후 경제위기에는 다시 여성의 경제참가율이 하향하였다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2년도에는 50%대를 조금 못 미치고 있다. 이는 남성의 73%와는 여전히 20%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여러 선진국들이 전체적인 경제참가율은 한국과 비슷하나 남성과 여성간의 경제참가율의 차이는 선진국들이 전체적 15%내외의 격차를 보이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 내에서는 여전히 남녀 간의 경제활동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보여져 한국의 여성들이 사회진출 및 재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국가통계포털,2012).

2000년도에는 들어와서 경제활동가능인구 36백만명 중 22백만명으로 61.2%가 경제활동인구로서 그 중 남자는 13백만명 74.4%, 여자는 9백만명 48.8%이었던 것이, 2012년도에 들어서는 경제활동가능인구 41.6백만명 중 25.5백만명 61.3%가 경제활동인구로서 그 중 남자는 14.9백만명 73.3%, 여자는 10.6백만명 49.9%로 늘어나서, 경제활동인구가 5.6백만명이나 늘어났고 여성은 그 중 1.6백만명이 늘어났지만 여성의 경제참가율은 고작 1%남짓 만 증

1) 국제 통화 기금(國際通貨基金,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12

가한 것으로 나타나, 2000년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여성의 사회진출에 어려움이 남아있음을 시계열분석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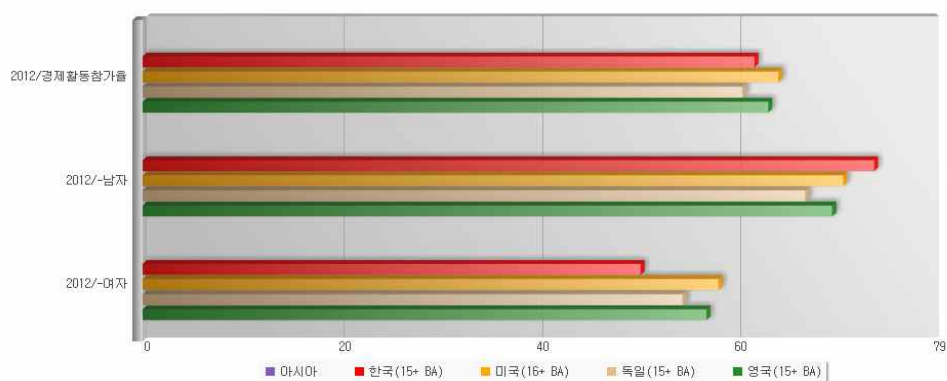
[그림 I -1]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추이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요국별 인간개발지수를 살펴보면, 기대수명은 한국이 주요선진국보다 더 길게 나타났고, 교육기간은 미국·독일보다 1~2년이 짧았지만 영국보다는 2년이 길게 나타나서, 1인당 GNI와 비교하여도 한국의 인간개발지수, 즉 교육정도는 선진국과 비교하여도 대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한국의 사교육이 선진국들에 비해 더욱 발달한 점을 감안해본다면 개발지수는 오히려 선진국들보다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I -2] 주요선진국과의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출처: 국가통계포털

[표 I -1] 2012년 주요국별 남녀경제활동참가율

국가별	경제활동참가율	남자(%)	여자(%)
한국	61.3	73.3	49.9
미국	63.7	70.2	57.7
독일	60.1	66.4	54.1
영국	62.7	69.1	56.5

※출처: 국가통계포털

[표 I -2] 2012년 주요국별 인간개발지수

국가별	인간개발지수	기대수명(세)	평균교육기간(년)	1인당 GNI(05)
한국	0.909	80.7	11.6	28,231
미국	0.937	78.7	13.3	43,480
독일	0.920	80.6	12.2	35,431
영국	0.875	80.3	9.4	32,538

※출처: 국가통계포털

주요국별 제조업 남녀임금격차를 살펴보면, 독일과 영국은 2008년에도 이미 남자의 임금이 100일 때 여성의 임금이 76내지는 83정도였는데 한국은 2010년 통계에서도 65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여성이 상대적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저임금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아직도 남녀임금격차가 분명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I -3] 2012년 주요국별 제조업 남녀임금격차

국가별	2006	2007	2008	2009	2010	비고
한국	57.7	57.6	57.9	63.2	64.8	남자 100기준
독일	73.9	76.3	76.3	-	-	
영국	85.2	81.5	83.2	-	-	

※출처: 국가통계포털

여성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의 측면에도 2008년도의 측면을 보면, 전 연령 층과 모든 교육정도의 부분에서 그저 그렇다가 31.6%, 대체로 찬성하는 경우가 36.2%이어서 결혼한 여성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2/3이상이 대체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대체로 반대 17.6%, 매우반대 5.4%으로서 23%에 해당하는 남편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

[표 I -4] 2008년 연령·교육정도별 아내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

연령·교육 정도별	전체 (%)	매우 반대 (%)	대체로 반대 (%)	그저 그렇다 (%)	대체로 찬성 (%)	매우 찬성 (%)
계	100.0	5.4	17.6	31.6	36.2	9.2
19~29세	100.0	6.6	20.4	24.5	36.3	12.2
30~39세	100.0	3.7	18.2	29.5	40.1	8.5
40~49세	100.0	4.6	15.2	31.8	37.6	10.7
50세 이상	100.0	7.6	18.9	35.3	30.6	7.6
중졸 이하	100.0	5.7	17.4	33.5	33.4	10.0
고졸	100.0	5.7	17.3	33.2	36.2	7.5
전문대졸 이상	100.0	4.7	18.2	28.0	38.2	10.9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조사, 2010

[그림 I -3] 2008년 연령별 아내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조사, 2010

위에서 보듯이 한국의 여성들은 여전히 남성보다 차별적인 위치에서 노동 시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즉 경제활동의 참가에서 남성에 비해 20%적게 참가하고, 임금도 남성대비 65%의 적은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기혼여성의 경우 경력단절이후에도 직장으로의 복귀 시 가족일원 중 가장 핵심일원인 남편의 비교적 긍정적인 복귀의사를 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력단절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의 복귀 시 필요한 직무교육 중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와 향후 그에 따른 노동시장의 복귀로의 방안 중 창업과 재취업의 의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경력단절여성의 직무교육 중 대표적인 세 가지, 즉 창업관련 교육, 회계세법관련교육, 사무자동화교육이 경력단절여성의 창업의지와 재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분석하고, 개인적인 노동시장의 복귀방안, 사회적인 제도의 정비,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으로의 복귀 후의 역할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여성의 경력단절 실태 및 노동시장 창업 및 재취업 욕구 실태를 파악한다.
- 둘째,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을 파악한다.
- 셋째, 경력단절여성의 주요 세 가지 직무교육이 창업 및 재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넷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인적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과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직무교육 즉, 창업관련교육, 회계세법교육, 사무자동화교육의 요인이 창업의지와 재취업의지라는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증적 분석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창업의지와 재취업의지가 직무교육의 영향요인 중 창업, 회계세법, 사무자동화 요인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이러한 요인과 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에서 살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특성파악을 위해 기술적 통계분석을 실시하며 설문내용에 대한 타당도 분석을 진행하고 측정도구의 정확성 및 정밀성,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신뢰성 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등을 살펴보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연구방법 등 개괄적인 체계를 언급하였다. 제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력단절여성예의 노동시장으로의 복귀요인이나 장애요인, 제도상의 지원 및 애로사항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였다. 제 3장은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변수들의 정의와 연구대상 및 자료 분석 방법 등을 서술하였다. 제 4장에서는 가설검증을 위한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실증연구의 결과를 제시하고, 제 5장에서는 연구의 요약 등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하고,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을 통해 향후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본 장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원인과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위한 분석, 실태, 제도 등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각각의 정의 및 기존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를 분석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제 1 절 경력단절여성의 이해

본 연구는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으로의 복귀와 관련하여 경력단절 실태를 살펴보고 노동시장으로의 복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연구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기에 앞서 연구자나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른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경력단절’, ‘노동시장으로의 복귀’ ‘직무교육’ 등 주요 변수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대상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경력단절’, ‘노동시장으로의 복귀’ ‘직무교육’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였다.

1.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²⁾)

오늘날 한국사회에서의 여성들은 고학력화, 여성지위의 상향으로 인한 남녀평등의식의 확산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지위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결혼, 출산, 육아의 이유로 근무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취업상태의 단절을 본 연구에서는 경력단절이라고 지칭하고자 하며, 본 연구에서 경력단절은 취업상태에서 미취업상태로 이동하여 노동시장에

2)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622호, 2011.1.13., 일부개정)

서 퇴장된 상태로서, 취업의사가 있을 수도 있으나 여성에게 특수한 주변 환경요인(결혼, 출산, 육아, 교육)에 의해 취업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 여성의 미취업상태(성지미, 2002)로 정의하고자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00년 여성의 대학 진학율은 65.5%로 여성의 고학력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 간의 노동시장의 진입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중의 하나인 대졸자의 취업률에서는 남녀 간의 격차가 여전히 남아있어 2013년에도 약 8%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I-1] 대학 졸업자 취업률³⁾

성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남자	71.2	70.2	55.7	58.7	60.1	59.7
여자	66.5	66.1	47.9	50.0	52.1	51.3

※출처: 교육부, 201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

하지만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평균과 비교하면 매우 낮아 2013년 10월의 자료에 의하면 2011년 현재 OECD평균 대졸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82.6%인 것에 비해 넘지만 우리나라는 62.4%에 그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년⁴⁾).

[표 II-2] 대졸자 경제활동참가율(25~64세, %, 2011)

구분	한국	OECD	일본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스웨덴
남자	92.4	91.7	95.2	89.2	91.3	92.7	91.4	93.8
여자	62.4	82.6	69.3	79.6	82.0	81.9	85.3	91.1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 2013

3) 2010년 이후부터 취업률은 건강보험 가입 취업률임.

건강보험DB연계취업률(%)=건강보험DB확인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대상(의료급여법수급권자및영농어업인자격으로입학및졸업한자)))*100

4) 2013년 3분기 여성인력관련 주요통계(여성가족부, 2013.10)

경력단절여성의 낮은 취업률은 특정 업종의 특성에 따른 문제, 노동시장의 남녀 간 성차별적 이중구조, 학력과 불일치하는 하향취업, 출산 및 육아로 인한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 확대가족의 반대 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노동시장으로의 복귀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재취업이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김영경(2006)은 경력단절여성에게 있어서 여성 재취업이란 여성 근로자가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을 퇴출한 이후 일정 이직기간 이후에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때 육아 휴직이나 결혼과 같이 고용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노동시장을 퇴출하였다가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본 연구의 재취업 범주에서 제외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한 주변 환경요인에 의해 취업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돌아가는 것을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로 정의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바, 김영경의 정의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정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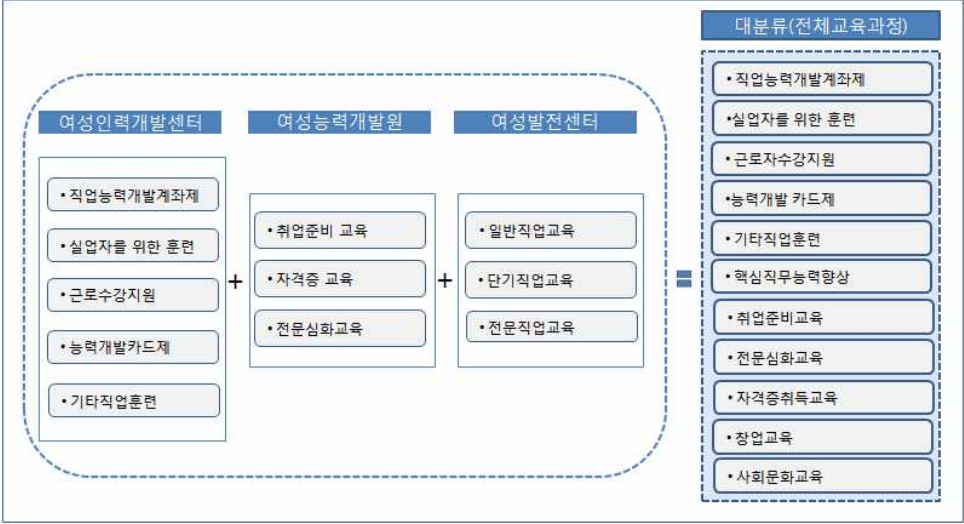
3. 직무교육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직업교육훈련 분류체계의 수립과 관리방안(조연숙 외, 2010)을 살펴보면, 현재 공공기관과 사설기관 중에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서는 여성능력개발원을 중심으로 20여개의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 등이 있다. 이곳에서는 사무관리, 교육강사, 보건의료, 사회복지, 조리, 제과제빵, 기타교육 등으로 여성을 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에 주로 육아나 결혼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한 여성이나 미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중 가장 다양하고 폭넓은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여성능력개발원 이하 조직에서 실행하고 있는 직무교육을 대표적으로 살펴본다면 [그림Ⅱ-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성들이 경영·회계·사무 분야의 직무교육을 받으려하는 의도

는 상당부분이 자격증을 획득하려는 부분이고 이로 인하여 장기적인 근무내지는 전문적인 업무부문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반영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II -1] 여성능력개발기관의 직업훈련 대분류



※출처: 여성능력개발원

교육대상자를 살펴보면, ‘실업자/재직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강좌가 전체 807개 응답과목 중 527개로 65.3%를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실업자’ 대상 강좌가 27.3%로 그 다음을 이었다. ‘재직자 대상’ 과목은 전체 중 58개, 즉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과목이 고용 상황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거나 실업자 및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훈련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과목의 비율이 높은 것은 경영·회계·사무 분야 36.8%, 교육 및 강사양성 분야 25.9%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과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 역시 경영·회계·사무 분야 14.7%, 사회복지분야 30.0%, 음식서비스 및 식품 가공 분야 13.4%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 -3] 교육훈련 분야별 교육대상자(단위: 개, %)

구분	전체(개)	실업자	재직자	실업자+재직자	기타
계	807	27.3	7.2	65.3	0.2
경영·회계·사무	137	38.8	14.7	48.5	0.0

교육 및 강사양성	139	25.9	0.7	73.4	0.0
사회복지	70	20.0	30.0	15.7	0.0
음식서비스	134	24.6	13.4	61.9	0.0
기타	327	-	-	-	-

※출처: 2010 서울여성인력개발기관의 직업교육훈련 분류체계의 수립과 관리방안

위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자격증을 획득하여서 재취업 및 창업에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는 경영·회계·사무 분야임을 알 수 있고, 여성개발기관 등이 연중 전반에 걸쳐 고른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창업관련교육과 회계세법교육, 한글·워드·엑셀·파워포인트 등으로 대변되는 사무자동화교육의 주요 세 가지 직무교육이 경력단절 여성에게 노동시장으로의 복귀에 필요한 자격증 획득에 필요한 직무교육으로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칭하고자하는 경력단절여성의 직무교육이란 창업관련교육, 회계세법교육, 사무자동화교육을 지칭하고, 이러한 세 가지의 직무교육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창업과 재취업의 의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선행연구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자신의 학력, 경력, 특정직무의 전문지식과 등과 더불어, 고용시장의 특성, 장기근속여부, 자녀관련 변수와 학력, 가계내의 타구성원의 소득 등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경력단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1. 고용시장의 특성과 경력단절의 원인

김주영(2010)은 경력단절여성의 여성고용의 특징을 연구하였는데, 결혼전후로 일자리를 그만두는 비율이 고졸이하 여성의 가장 높았지만, 출산이후로는 전문대 및 대졸이상의 여성이 더 높았고, 상용근로자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았으며, 노동시장으로의 복귀 시기는 아동이 취학하는 시기와 비슷해지고, 배우자의 소득과 노동시장의 복귀는 강한 음의 효과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로 육아의 문제가 여성의 노동시장재진입에 매우 중요한 장애물임을 보여주고 재택근무를 확충해야하는 점, 여성의 일자리가 배우자의 자영업에 강한 영향을 받아서 무급가족노동자의 비중이 늘어난다고 시사하고 있다.

임희정(2009)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기업의 인사관리에 관한 연구에서, 30-40대 기혼여성의 채용 시 중요한 평가요소로서 전문지식이나 기술여부가 35.7%를 차지하고, 철저한 직업의식 24.2%, 장기근속가능여부 19.5%로서 파악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경력단절여성 개인적 차원에서는 직업탐색과정에서 여성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우선과제이며, 기업차원에서는 경력단절의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정부차원에서는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민현주(2009)는 여성의 생애단계별 경력단절경험과 재취업을 연구하면서 ‘단기경력단절(12개월 미만)’과 ‘중기경력단절(12-36개월)’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중기경력단절(12-36개월)’집단과 ‘중장기경력단절(36-60개월)’과 ‘장기경력단절(60개월 이상)’집단 간에는 인적자원 수준의 효과와 생애주기 사건, 그리고 임금수준이 비교적 큰 차별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연령이 높은 집단은 장기적인 경력단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고학력일수록, 그리고 재취업 시 첫 일자리에에서의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여성들은 장기적인 경력단절보다는 단기경력단절만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녀양육이나 가사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이 사회적 차별이나 불만족스런 근로조건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에 비해 재취업의 시기가 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여성근로자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동시에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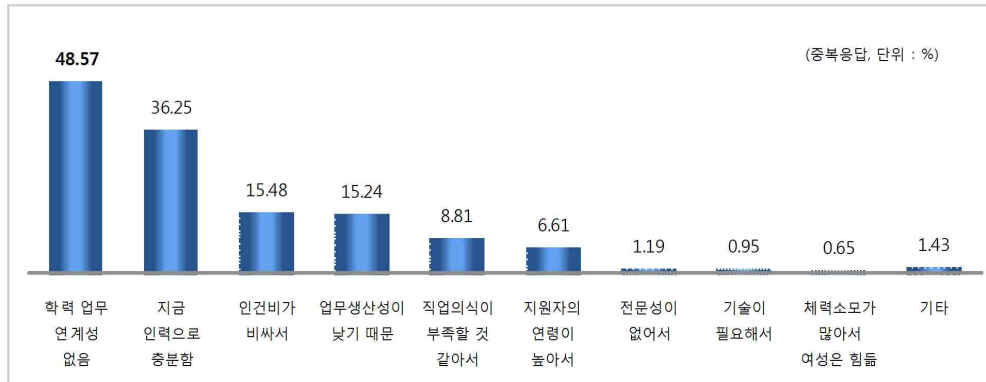
2. 경력단절여성의 직무교육 프로그램

김인선(2005)은 경력단절여성 경력지원프로그램의 효과연구에서, 서울소재 14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실태와 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정부지원과정과 일반과정에는 그 효과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는 교육생의 자질, 강사의 질, 교육의 충실도 등이 그 원인으로 찾을 수 있으며, 따라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육성하려면 여성의 직업의식 고취와 취업대비교육의 필요성, 취업후의 사후지원프로그램의 필요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인원·강인성·조연숙은 국가정책연구(2012년3월, 제26권제1호)에서 서울시 기업체에 있어서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방안 및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하였는데, 서울시의 경우 인적자원의 통계적 특성 중 하나는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고학력경력단절여성을 활용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서울시 기업 2,500개중 33%인 820여개 기업체가 채용의사가 있다고 67%는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림Ⅱ-2]와 같이 ‘학력과 업무와의 연계성이 없기 때문’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금인력으로 충분하다가 36.3%, 인건비가 비싸서 15.5%등이 있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채용직무 분야는 보육교사12.0%, 사무직 서류관리 6.2%, 회계 세무회계 6.1%가 뒤를 이었다. 실태분석의 결과로서 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 시에 고려되는 재정적 요소 중 기업이 실제 활용하고 있는 인턴십 제도의 여부, 고용 장려금의 운영여부, 그리고 훈련시설의 확충 및 지원 여부를 모두 고려해야하고, 인력개발 측면에 있어서는

고용정보의 제공, 교육훈련제도의 효율적으로 운영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림 II -2]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활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



[표 II -4] 여성능력개발기관에서의 서울시내의 지역별구분

권역	해당자치구	비고
도심권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동북권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중랑구	
동남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동구	
서북권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양천구	
서남권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3.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으로의 복귀 결정요인

조순일(2009)은 경력단절의 주원인중 결혼과 육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82%라고 보고 있으며, 경력단절여성의 53%가 창업을 희망하고 있다고 하였고, 창업을 하고 싶은 이유로는 연령에 구애받고 싶지 않아서라는 대답이 24%, 시간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어서라는 대답이 31%,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어서라는 대답이 31%로서 일과 가정을 병행하면서 시간과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자 하는 경력단절여성의 의증을 파악하였으며 재진입시 나이와 경력 전문기술의 부족을 가장 많은 애로 사항(64.3%)으로 느끼고 있었으며, 95% 이상의 여성이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하며 이때의 필요한 교육

은 취업·창업관련교육, 직업관련교육, 자기개발교육 절실히 필요하다고 한다.

오은진(2009)은 고학력 여성들은 30대 초반에 이탈한 후에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지 못하는 I자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 저 출산·고령화시대에 고급인력 유희화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여성의 취업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원인을 분석하였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경력단절 시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을수록, 구직활동과 직업훈련활동이 높을수록 취업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였고, 경력단절기간이 짧을수록, 즉 육아와 가사문제를 어떻게 최단시간에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였으며, 여성 직업훈련기관을 통하는 경우 4년제 대졸출신 여성들은 비정규직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고, 대기업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고졸자보다 비정규직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박효진과 은선경(2012)은 경력단절경험을 가진 여성의 노동시장재진입시 미취학자녀를 둔 여성의 일과 가족의 양립정책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부모의 동거여부, 자녀수의 변화, 그리고 출산 전·후 일자리 변화가 있고,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은 부모와 함께 동거하게 되면 미취학 자녀의 돌봄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에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자녀수의 변화 즉, 가족 내 미취학 아동의 수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의도가 낮게 나타나기는 했으나 산전후 휴가에 대한 인지정도가 노동시장 재진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홍보 및 지원책이 확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일자리 변화와 관련하여 보면 출산 1년 이내(산전 6개월, 산후 6개월)에 일자리에 변화를 경험한 여성일수록 일-가족 양립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였다.

또한, 해외의 연구사례에서도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으로의 복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고학력의 여성들이 저학력 여성들보다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에 좀 더 용이하며 폭넓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Bowen & Finegan, 1969; Killingworth & Heckman, 1986), Leibowitz(1975)는 고학력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노동시장 진입율이 높기는 하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에는 높지 않다고 하였고, Hill & Stafford(1974)는 대졸여성의 경우 3세 미만 자녀의 수에 따라 노동시장 참가를

줄어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Waite(1980)는 자녀의 양육문제가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중요한 변수임을 밝혔고, Carline 등 (Carline et al., 1984; Rosenzweig & Shultz, 1984)에 의하면 남편의 소득이나 주요 가족구성원의 소득이 높을수록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및 복귀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Desai & Waite(1991)는 젊은 층의 여성이 출산 후 노동시장 재진입률이 높고, 취업에 대해서 더 강한 애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Chang(1997)은 고학력 여성들의 경우 자녀양육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 이들의 요구임금은 출산 직후 더 높아져, 출산 이후 노동시장 참여에 이들의 학력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지만, Leibowitz et al.(1991)은 고학력 보다는 고졸이하의 학력이 노동시장 복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Barrow(1999)의 연구에서는 첫 자녀 출산 이전에 일을 했던 여성들의 3/4이 1년 이내에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Lehrer & Nerlove(1984)는 자녀보육자가 있는 여성이 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Klerman & Leibowitz(1990)는 남편의 소득이 낮을수록, 여성이 출산 이후 바로 노동시장에 복귀하고, 남편 등 기타가족원의 수입과 자산이 많은 여성일수록 취업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에서 미취업으로의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Dexetal(1998)의 연구에서도 남편의 소득은 출산 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의 경제적 수준과 관련하여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경력단절여성들이 노동시장 복귀를 결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외의 연구에서도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요인과 복귀요인에 대해 다양하게 분석했지만, 국내의 결과와 그 계량화 수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요인의 내용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제 3 절 선행연구와의 관련성 및 차별성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원인을 파악, 진단, 분석(월간노동리뷰)하였거나, 경력단절여성의 일과 가족관계에 관한 정책(박효진, 은선경, 2012),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방안이나 지원정책(이인원 외 2명, 2012) 고용촉진제도가 창업동기 및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바에 비한다면,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노동시장으로의 구체적인 복귀방안인 세 가지의 직무교육, 즉 창업, 회계세법, 사무자동화교육이 창업의지와 재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사례는 이번 연구가 처음으로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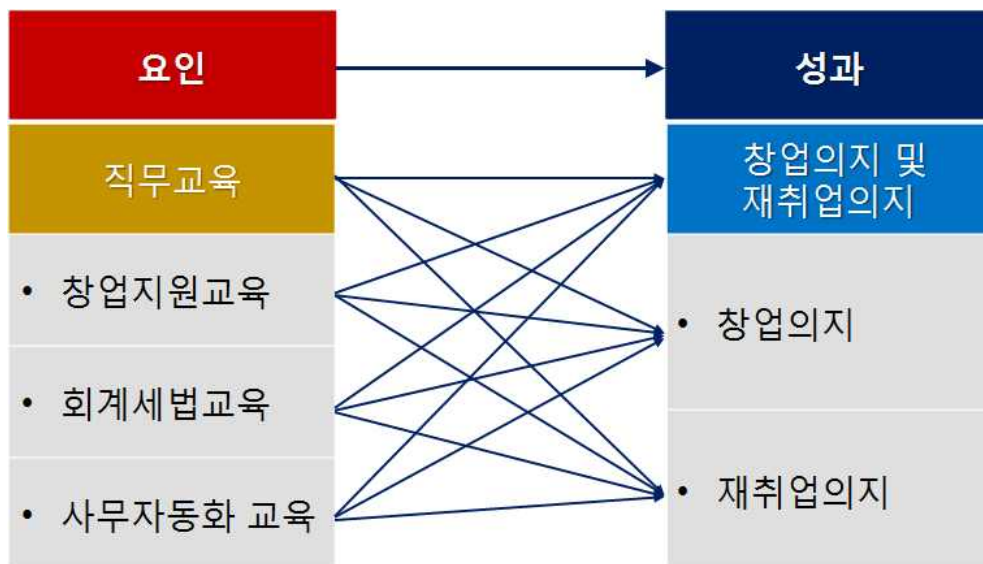
제 3 장 연구모형 및 가설

제 1 절 연구모형의 설계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에의 여러 직무교육 중에서 창업관련 직무교육, 회계세법관련 직무교육, 사무자동화관련 직무교육이 창업의지와 재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으로의 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 창업관련 직무교육, 회계세법관련 직무교육, 사무자동화관련 직무교육이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으로의 복귀에 미치는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을 검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3-1]과 같다.

[그림Ⅲ-1] 연구모형도



제 2 절 연구가설의 설정

선행연구는 경력단절여성에게 행하는 교육, 즉 일반화 교육이나 국가정책 등의 영향만을 연구하였으나 연구대상이 광범위하여 특정분야의 연구 성과를 대변하지는 못하고 있다. 더욱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여러 제도나 사회복귀로의 시스템이 매년 변경됨으로서 전반적인 영향을 일반화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을 연구에는 연구대상이 고학력의 여성에 국한되어 있거나 일반적인 교육의 영향만을 주제로 정하고 있어서 특정교육, 즉 직무교육을 중심으로 한 영향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경력단절여성에의 직무교육은 경력단절여성의 사회로의 복귀의 일환으로 2010년대 이후 여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및 역할의 분담을 이루어 내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교육으로서의 역할 및 남녀동등의 발판으로 정부로부터 여성지위의 향상을 통한 여러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여성의 사회로의 복귀에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여전히 상존하므로, 직무교육을 통한 창업과 재취업의 의지가 얼마나 높아지는가를 비교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경력단절여성의 직무교육은 창업의지 및 재취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력단절여성에의 직무교육, 즉 창업지원관련 직무교육, 회계세법관련 직무교육, 사무자동화 직무교육은 창업 및 재취업에 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창업지원교육, 회계세법교육, 사무자동화교육이 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비교하기 위해 다음과 하위가설을 설정하였다.

하위가설1. 경력단절여성의 직무교육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위가설2. 경력단절여성의 직무교육은 재취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그림Ⅲ-1]과 같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직무교육인 창업관련교육, 회계세법교육, 사무자동화교육이 창업의지와 재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창업관련교육, 회계세법교육, 사무자동화교육이 창업의지와 재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식(1), 식(2), 식(3), 식(4), 식(5), 식(6)을 설정하였다.

$$SRV = \alpha_0 + \beta_1 X_1 + \varepsilon \quad (1)$$

여기에서, SRV = 창업의지와 재취업의지(Start-up Volition and Re-Employment Volition);

X_1 = 전체직무교육;

e = 잔차항.

$$SV = \alpha_0 + \beta_1 X_1 + \varepsilon \quad (2)$$

여기에서, SV = 창업의지(Start-up Volition);

X_1 = 전체직무교육;

e = 잔차항.

$$RV = \alpha_0 + \beta_1 X_1 + \varepsilon \quad (3)$$

여기에서, RV = 재취업의지(Re-Employment Volition);

X_1 = 전체직무교육;

e = 잔차항.

$$SRV = \alpha_0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varepsilon \quad (4)$$

여기에서, SRV = 창업과 재취업의 의지(Start-up and Re-Employment Volition);

X_1 = 창업관련교육;
 X_2 = 회계세법교육;
 X_3 = 사무자동화교육;
 e = 잔차항.

$$SV = \alpha_0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varepsilon \quad (5)$$

여기에서, SV = 창업의지(Start-up Volition);

X_1 = 창업관련교육;
 X_2 = 회계세법교육;
 X_3 = 사무자동화교육;
 e = 잔차항.

$$RV = \alpha_0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varepsilon \quad (6)$$

여기에서, RV = 재취업의지(Re-Employment Volition);

X_1 = 창업관련교육;
 X_2 = 회계세법교육;
 X_3 = 사무자동화교육;
 e = 잔차항.

식(1)은 창업의지와 재취업의지의 요인인 직무교육전체를 독립변수로 모두 포함하고 창업의지와 재취업의지 전체(SRV)를 종속변수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식(1)에서 β_1 은 양(+)으로 예상된다.

식(2)는 창업의지의 요인인 직무교육전체를 독립변수로 창업의지(SV)를 종속변수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식(2)에서 β_1 은 양(+)으로 예상된다.

식(3)은 재취업의지의 요인인 직무교육전체를 독립변수로 재취업의지(RV)를 종속변수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식(3)에서 β_1 은 양(+)으로 예상된다.

식(4)는 창업의지와 재취업의지의 요인인 창업관련교육, 회계세법교육, 사무자

동화교육의 3개 항목을 독립변수로 모두 포함하고 창업의지와 재취업의지(SRV)를 종속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식(4)에서 $\beta_1, \beta_2, \beta_3$ 모두 양(+)으로 예상된다.

식(5)는 창업의지의 요인인 창업관련교육, 회계세법교육, 사무자동화교육의 3개 항목을 독립변수로 모두 포함하고 창업의지(SV)를 종속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식(5)에서 $\beta_1, \beta_2, \beta_3$ 모두 역시 양(+)으로 예상된다.

식(6)은 재취업의지의 요인인 창업관련교육, 회계세법교육, 사무자동화교육의 3개 항목을 독립변수로 모두 포함하고 재취업의지(RV)를 종속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식(6)에서 $\beta_1, \beta_2, \beta_3$ 모두 역시 양(+)으로 예상된다.

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될 변수 중 독립변수는 창업관련교육요인, 회계세법교육요인, 사무자동화교육요인이며, 종속변수는 창업의지, 재취업의지, 창업과 재취업의 의지를 포함한다. 각 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측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1.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창업관련교육요인, 회계세법교육요인, 사무자동화교육요인으로 구분된다.

가. 창업관련 교육요인

창업관련 교육요인은 창업관련 특강과 특히 창업주는 창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포함한 교육, 즉, 사업계획서의 작성, 업종별 창업절차, 창업자금의 조달, 창업관련 법률지원제도,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 창업과정, 협동조합 및 협업화 조직의 구성관련 과정 등의 일체를 의미하는 것이며 별도의 강좌가 개설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직업교육훈련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 또한 포함한다.

나. 회계세법관련 교육요인

회계세법관련 교육요인은 먼저, 회계학과 관련된 모든 교육, 즉, 기업회계기준해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해설, 회계원리, 재무회계, 중급회계, 연결회계, 재무분석, 원가회계, 원가관리회계, 업종별 회계, 융자, 보증보험 등의 일체를 일컬으며, 둘째, 세법학과 관련된 모든 교육, 창업자의 사업자등록을 비롯해서 세무조정 및 합병·분할 등의 특례, 납세절차 등을 포함한 법인세, 영세율·면세·간이과세 등을 비롯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사업소득세·연말정산·종합소득신고 등을 포함한 개인소득세, 취득세·주민세 등의 지방세, 상속세·증여세 등의 세법관련

교육의 일체를 말한다.

다. 사무자동화관련 교육요인

사무자동화관련 교육요인은 한글·워드 등의 문서화교육, 엑셀·엑세스 등의 스프레드시트 관련교육, 파워포인트·프레지 등의 프리젠테이션 관련교육, 동영상편집·인터넷검색·홈페이지구축·블로그·스마트폰관련 등 사무자동화 관련 일체의 교육을 의미한다.

2. 종속변수

경력단절여성의 직무교육 중 창업관련교육, 회계세법교육, 사무자동화교육을 독립변수로 보았을 때 종속변수로는 창업의지(Start-up Volition:SV)와 재취업의지(Re-Employment Volition:RV), 창업과 재취업의 의지(Start-up and Re-Employment Volition:SRV)로 보았다

가. 창업의지(Start-up Volition:SV)

창업의지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등의 사업구조의 형태, 협동조합이나 협업 등의 동업여부, 가업승계나 확대가족간의 분할과 합병 등을 모두 포함하여 새로운 사업을 실행하고 이에 따른 일체에 대해 전부 경영이나 부분 경영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일컫는다.

나. 재취업의지(Re-Employment Volition : RV)

재취업의지는 기존의 어떠한 형태의 근무지에서의 진입을 하고자하는 의지를 일컫는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로의 진입과 협동조합이나 협업체로의 진입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또한 가족 내의 배우자의 사업장으로의 무급가족종사자로서의 진입하고자하는 의지 또한 재취업의지에 포함한다.

다. 창업과 재취업의 의지(Start-up and Re-Employment Volition:SRV)

창업과 재취업의지는 위의 창업의지와 재취업의 의지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등의 사업구조의 형태, 협동조합이나 협업 등의 동업 여부, 가업승계나 확대가족간의 분할과 합병 등을 모두 포함하여 새로운 사업을 실행하고 이에 따른 일체에 대해 전부 경영이나 부분 경영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기존의 어떠한 형태의 근무지에서의 진입을 하고자하는 의지를 일컫는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로의 진입과 협동조합이나 협업체로의 진입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또한 가족 내의 배우자의 사업장에서의 무급근로자로서의 진입하고자하는 의지를 모두 포함한다.

3. 설문지의 구성

설문지의 구성은 모두 30문항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관한 질문이 22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그 중 독립변수인 창업지원교육에 대해서는 창업진로의 선택에 도움여부, 기업가적 마인드의 형성여부, 창업절차의 이해, 창업지원제도의 활용여부를 묻는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회계세법교육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되었는가, 업무의 불안감 해소, 업무프로세스의 이해, 업무역량의 증진에 도움이 되었는가를 묻는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사무자동화교육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한 정보획득, 업무의 불안감 해소, 업무프로세스의 이해, 업무역량의 증진에 도움이 되었는가를 묻는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종속변수인 창업의지부분의 지문에는 창업전반사항의 이해, 창업에 도움이 되었는가, 자신감, 동기부여, 비전과 목표설정이 확실해졌는가에 대한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재취업의지부분의 지문에는 재취업전반사항의 이해, 재취업에 도움이 되었는가, 자신감, 동기부여, 비전과 목표설정이 확실해졌는가에 대한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질문으로는 모두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취업의 경험유무, 근무기간, 근무 당시의 직종, 퇴사사유, 창업의 이유, 재취업의 이유, 연

령, 최종학력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Ⅲ-1]과 같다.

[표Ⅲ-1] 변수에 관한 설문지 구성

변수	항목	번호	내용
독립 변수	창업지원교육	1	진로선택에의 도움
		2	기업가적마인드의 형성
		3	창업절차의 이해
		4	창업지원제도의 활용
	회계세법교육	5	업무의 정보획득
		6	업무에 대한 불안감 해소
		7	업무프로세스의 이해
		8	업무역량의 증진
	사무자동화교육	9	업무의 정보획득
		10	업무에 대한 불안감 해소
		11	업무프로세스의 이해
		12	업무역량의 증진
종속 변수	창업의지	13	창업전반사항의 이해
		14	창업에 도움
		15	자신감의 고취
		16	동기부여
		17	비전과 목표의 설정
	재취업의지	18	재취업전반사항의 이해
		19	재취업에 도움
		20	자신감의 고취
		21	동기부여
		22	비전과목표의 설정

제 4 장 실증분석

제 1 절 표본조사 범위선정, 구성과 수집

본 연구의 조사는 설문조사에 기초하였으며, 설문지 배부는 직접 방문과,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 교육기관인 여성능력개발원, 개발센터 및 발전센터의 관계자에게 의뢰,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통한 수집 등 모두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각 조사방법에서 오는 응답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메일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설문을 다운 받은 후 응답한 후 회송하도록 하였으며, 직접 방문한 경우 조사자가 응답자에게 설문을 배포한 후 직접 수거하였으며, 관계자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회수 후 회송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조사방법에 따라 분석 결과의 해석이 오염될 가능성은 상당히 배제하도록 하였다. 본 조사는 직접 수거 방법으로는 여성능력개발원 및 여성개발센터의 수강생, 부천문화재단의 수강생을 모집단으로 한정하였으며, 이메일 조사에서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창업특강 및 직무교육을 수강한 수강생으로 한정하였으며, 설문조사 자료의 배포 및 수집은 2013년 11월 5일부터 2013년 11월 20일 사이에 이루어 졌으며, 미진한 응답이나 불확실한 값의 경우를 제외한 총 84부를 타당한 자료로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창업의지와 재취업의지에 대한 요인이 될 수 있는 창업지원교육, 회계세법교육, 사무자동화교육 등에 대하여 조사범위를 선정하고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창업교육, 회계세법교육, 사무자동화교육의 주제별로 교육의 이해정도, 업무에 대한 불안감의 해소 및 이해정도, 업무에의 활용정도의 분석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요인간의 분석 및 상호연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세 가지의 직무교육별의 요인이 창업이나 재취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와 더불어 세 가지의 직무교육 전체가 창업과 재취업의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리하여 직무교육이 경력단절여성의 직무교육이 노동시장으로의 복귀에 어떻게 얼마나 미치는지와 이러한 분석을 통해 직무교육이 경력단절여성의 직업교육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와 이를 경력단절여성의 직무교육의 선택과 직무교육제도의 점검과 이에 따른 개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대상의 기술적 통계분석

1. 경력 근무 기간

설문결과와 응답현황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표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Ⅳ-1]과 같다. 총 84명의 응답자중 전원이 취업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취업에 따른 누적 근무기간의 분포를 살펴보면 5년 미만의 경력자가 32명으로서 38.1%로 제일 많았고, 이어서 10년 미만의 경력자가 24명으로 28.6%, 20년 미만의 경력자가 22명으로 26.2%를 기록함으로써 어느 정도 고른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평균20년 이상의 경력근무자는 2명이었고 4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된 경력단절여성이 총 근무경력이 20년 이상은 드물 정도로 남성의 근무경력보다는 상당히 적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육아나 결혼 등으로 인하여 가정의 부담이 노동시장 및 사회로의 복귀를 더디게 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앞 절에서 보았던 남녀 간의 임금의 격차로 인한 장기적인 노동의지의 상실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표Ⅳ-1] 설문응답자의 취업경험유무

구분	응답자수	비율	누적	누적비율
유	84	응답자수	84	100.0
무	0	0	84	100.0

[표Ⅳ-2] 설문응답자의 취업 경력 근무기간

구분	응답자수	비율	누적	누적비율
5년 미만	32	38.1	32	38.1
5년 이상 ~ 10년 미만	24	28.6	56	66.7
10년 이상 ~ 20년 미만	22	26.2	78	92.9
20년 이상 ~ 30년 미만	2	2.4	80	95.3
30년 이상	0	0.0	80	95.3
무응답	4	4.7	84	100.0

2. 퇴직 사유

퇴직사유를 보게 되면 결혼, 출산과 자녀양육이 각각 13%, 17.4%, 18.5%로 나타나서 결혼에 이는 자녀의 출산과 자녀양육이 경력단절의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난다. 또한 이번 설문에서는 가족의 반대사유는 보이지 않았고 저임금의 사유로 7.6%, 학업의 사유로 5.4%이지만 기타의 의견도 33.7%로 나타났으며 그 기타의 사유로는 스트레스, 회사의 사정, 폐업 등이 있었다. 즉, 여성경력단절의 주원인이 바로 결혼과 이에 따른 출산 및 육아 때문인 것이고 이로 인한 상당한 기간의 경력단절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표Ⅳ-3] 설문응답자의 퇴직 사유

구분	응답자수	비율	누적	누적비율
결혼	12	13.0	12	13.0
출산	16	17.4	28	30.4
자녀양육	17	18.5	45	48.9
가족의 반대	0	0.0	45	48.9
저임금	7	7.6	52	56.5
학업	5	5.4	57	61.9
기타	31	33.7	88	95.6
무응답	4	4.4	92	100.0

3. 창업의 사유

창업을 원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복수응답을 인정하는 질문이어서 누적응답자수는 106명을 기록하였는데, 이 중 가장 많은 창업의 이유는 장기적인 직업소유의 원인이 34.0%이어서 월등히 많아서, 경력단절이후에는 보다 안정적인 근무형태를 희망하고, 이어서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가 17.0%, 전문영역으로의 확장이 15.1%, 사회적인 성공이 10.4%, 아이디어의 사업화가 6.6%로 뒤를 이었고, 기타와 무응답이 7.5%와 9.4%를 기록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보였던 여성의 경력단절 전의 직종과도 상당히 유사하였는데 단절전의 직종이 사무직과 회

계 등의 부분에 대부분 종사함을 비추어보면, 노동시장으로의 복귀이후에도 여전히 장기적인 직업에 근무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Ⅳ-4] 설문응답자의 창업을 원하는 사유

구분	응답자수	비율	누적	누적비율
아이디어 사업화	7	6.6	7	6.6
높은 수익에 대한 기대	18	17.0	25	23.6
사회적인 성공	11	10.4	36	34.0
전문영역의 확장	16	15.1	52	49.1
장기적인 직업소유	36	34.0	88	83.1
기타	8	7.5	96	90.6
무응답	10	9.4	106	100.0

4. 재취업 사유

재취업을 원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도 복수응답을 인정하는 질문이므로 [표Ⅳ-5]에서 보이듯이 누적응답자수는 126명을 기록하였는데,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가 31.7%로서 가장 많았고, 사회적인 소속감 19.8%, 장기적인 직업소유 19.0%, 새로운 영역에의 도전 15.9%, 과거경력의 활용이 6.3%, 기타와 무응답이 각각 1.6%, 5.7%를 기록하였다. 이는 노동시장으로의 재취업이후에는 여전히 새로운 영역에의 도전보다는 안정적인 수익과 사회적인 소속감을 원하여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의도를 잘 반영하고 있다.

[표Ⅳ-5] 설문응답자의 재취업을 원하는 사유

구분	응답자수	비율	누적	누적비율
안정된 수익 기대	40	31.7	40	31.7
사회적인 소속감	25	19.8	65	51.5
과거경력 활용	8	6.3	73	57.8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	20	15.9	93	73.7
장기적인 직업소유	24	19.0	117	92.7
기타	2	1.6	119	94.3
무응답	7	5.7	126	100.0

5. 연령별 분포

응답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20세미만은 없었고, 30대와 40대가 모두 35.7%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11.9% 50대가 9.5%이며 무응답도 7.2%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여성의 경력단절에 이은 사회로의 복귀의지가 30대와 40대에 가장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면 50대 이후에는 노동의지의 반감, 신기술습득의지의 저하 등으로 사회로의 복귀의지가 희석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표Ⅳ-6] 설문응답자의 연령분포

구분	응답자수	비율	누적	누적비율
20세 미만	0	0.0	0	0.0
20세 이상 ~ 30세 미만	10	11.9	10	11.9
30세 이상 ~ 40세 미만	30	35.7	40	47.6
40세 이상 ~ 50세 미만	30	35.7	70	83.3
50세 이상	8	9.5	78	92.8
무응답	6	7.2	84	100.0

6. 학력 수준

응답자의 학력수준은 전체 84명모두가 고졸이상의 학력을 보여주고 있고, 고졸과 전문대졸 각각 9.5%, 16.7%이고, 대졸 57.1%, 대학원졸 이상 10.1%로 나타나서 4년제 대졸자 이상만 해도 67.8%를 차지하는 등의 고학력을 보여줌으로서, 경력단절여성의 대부분이 전문대졸이상의 고학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서 고학력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Ⅳ-7] 설문응답자의 학력분포

구분	응답자수	비율	누적	누적비율
고졸이하	8	9.5	8	9.5
전문대졸	14	16.7	22	26.2
대졸	48	57.1	70	83.3
대학원졸 이상	9	10.7	79	94.0
무응답	5	6.0	84	100.0

7. 직종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직종을 살펴보면, 사무직이 61.9%, 전문직이 15.5%, 서비스직이 9.5%, 기술생산직 3.6%순으로 구성되어서, 사무직과 전문직이 80%에 육박함을 보이고 있어서 경력단절 이전의 근무지가 대부분 산업현장 이나 영업직 보다는 사무·경리·행정직 및 전문직에 가까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으로의 복귀 시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려할 때 기존의 지식과 기술이 사무직에 국한 되어있어 이와 유사하거나 동종의 지식을 습득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창업 시에 본인의 경력단절여성의 역할에 비추어볼 때도 사무직을 고수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Ⅳ-8] 설문응답자의 직종

구분	응답자수	비율	누적	누적비율
기술생산직	3	3.6	3	3.6
사무직	52	61.9	55	65.5
서비스직	8	9.5	63	75
전문직	13	15.5	76	90.5
기타	4	4.8	80	95.3
무응답	4	4.7	84	100.0

제 3 절 변수의 신뢰성 분석 및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한 설문지를 측정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측정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신뢰성⁵⁾은 한 대상을 유사한 측정도구로 여러 번 측정하거나 한 가지 측정도구로 반복 측정했을 때 일관성이 있는 결과를 산출하는 정도를 말한다. 따라서 지표가 신뢰성이 있게 측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자료가 일관성(Consistency)이 있고 안정성(Stability)있으며, 정확해서 의존가능성(Dependability)있어서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측정치에 비체계적인 확률 오차가 들어있지 않은 정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측정방법 중 내적 일관성을 조사하는 대표적인 기법인 크론바 알파(Cronbach's α)⁶⁾를 이용하여 신뢰성을 검토했다. 사회과학연구에서는 흔히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간주된다.

타당성은 일반적으로 조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는가의 척도로 표현된다. 이는 측정하려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였으며 이 개념적 정의를 어떻게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는가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타당성은 평가방법에 따라 내용타당성과 기준에 의한 타당성, 개념타당성 등으로 구분되며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평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내용타당성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이론적 내용을 모두 조사했으며, 기준에 의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항목을 리커트 5점 척도⁷⁾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개념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요인분석(factor analysis)⁸⁾을 실시하였다.

5) 이학식, 『SPSS 20.0과학 조사방법론』, 집현전, 2013

6) 모형의 일관성을 나타내는 계수로 모형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계수는 0~1의 값을 갖는데, 값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통 0.8~0.9의 값이면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며, 0.6 이상이면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함. 크론바흐 알파계수 = $\{ \text{항목 개수} \div (\text{항목 개수} - 1) \} \times \{ 1 - (\text{항목변량들의 합} \div \text{전체측정 변량}) \}$

7) 문장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 대답하는 형식으로 5단계 척도를 사용함.(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보통이다/그렇다/매우 그렇다) 리커트 척도는 양극 척도 방법이며, 그 문장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을 측정함.

8) 알지 못하는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문항이나 변인들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상관이 높은 문항이나 변인들을 묶어서 몇 개의 요인으로 규명하고 그 요인의 의미를 부여하는 통계방법으로 이를 통해 요인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더라도 중요도가 낮은 변수들은 제거함으로써 관련된 변수들이 묶여져 요인을 이루지만 상호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어 변수들의 특성을 알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동된 같은 개념을 관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항목을 사용한 변수들의 내적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Ⅳ-9]와 같다.

[표Ⅳ-9] 신뢰도분석 및 요인분석 결과

변수		Cronbach's α	Eigen value
독립변수	창업지원교육	0.905	3.120
	회계세법교육	0.863	2.850
	사무자동화교육	0.889	3.007
종속변수	창업의지	0.933	3.955
	재취업의지	0.865	3.266

신뢰도의 조사결과는 독립변수 창업지원교육, 회계세법교육, 사무자동화교육일체의 독립변수와 창업의지, 재취업의지의 종속변수 일체의 모든 요인의 Cronbach's α 의 수치가 0.8 이상으로 높게 나와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측정항목들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는 창업교육관련 요인, 회계세법교육관련 요인, 사무자동화관련 교육요인의 3가지 요인으로 파악되었고, 종속변수는 창업의지와 재취업의지, 창업의지와 재취업의지의 3가지요인으로 파악되었다.

[표Ⅳ-10] 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결과⁹⁾

Pearson Spearman	창업지원교육	회계세법교육	사무자동화교육	창업의지	재취업의지
창업지원교육		0.442***	0.331***	0.755***	0.509***
회계세법교육	0.509***		0.680***	0.447***	0.566***
사무자동화교육	0.460***	0.723***		0.434***	0.518***
창업의지	0.780***	0.502***	0.572***		0.557***
재취업의지	0.537***	0.537***	0.488***	0.561***	

9)*** : 1% 유의수준

또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변수상호간의 상관관계분석에서도 모수적 통계 분석인 피어슨 분석¹⁰⁾과 비모수적 통계분석인 스피어만 분석¹¹⁾에서도 모두 1% 유의수준이내에서 모두 상관관계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10) 상관계수의 한 형태로서 변인 X와 변인 Y 간의 선형 관계성의 정도를 0에서 1.00 혹은 0에서 -1.00의 척도 상에서 기술해 주는 통계치를 의미함.

11) 측정치 사이에 동간성(同間性)이 없을 때, 또는 사례 수가 적거나 상관관계를 빨리 알고자 할 때 계산하는 상관계수로서 분포의 정상성을 가정하지 않은 비모수적(非母數的) 통계 방법의 하나임.

제 4 절 실증분석 및 가설검증

1.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설문지 문항 중 창업지원교육, 회계세법교육, 사무자동화교육, 창업의지 및 재취업의지 등에 대하여 각 요인별로 공통요인 1개씩을 추출하였다. 예를 들어, 창업지원교육 요인에 해당하는 4개 응답치를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창업지원교육” 요인을 대표할 수 있는 1개의 공통요인을 추출하고 그 값을 새로운 변수로 저장하였다.

모든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¹²⁾ 및 직각요인회전(orthogonal factor rotation)방법 중 하나인 Varimax 회전방식¹³⁾으로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모형의 식(1) ~ 식(6)에서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로 사용될 변수를 각각 1개의 값으로 설정했다.

2.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요인분석에서 새롭게 추출되어 저장된 전체직무교육을 변수 값으로 식(1) ~ 식(3)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각 직무교육의 변수를 다르게 적용하여 식(4) ~ 식(6)을 반복하여 추정했다. 각 회귀식의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전체 직무교육의 영향

[표Ⅳ-11]은 전체 직무교육이 창업 및 재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모든 회귀분석에서 전체 직무교육이 종속변수인 창업 및 재취업의지에 매우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량

12) 주성분분석은 하나의 관측 대상에 대해 많은 관측 값(다변량(多變量))이 있는 경우 하나 하나의 변수별 또는 2개 변수의 상관관계별로 검토해도 전체 상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주성분 분석은 많은 변수의 분산방식(분산·공분산)의 패턴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주성분을 원래 변수의 선형결합(무게에 대한 평균점)으로서 추출하는 통계 기법임.

13) 많은 자료나 변수를 보다 적은 수의 요인 또는 차원으로 축소하는 경우에 추출된 요인의 해석을 쉽게 하기 위한 회전법 중에서 요인 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회전방법임.

은 모든 종속변수에서 1% 유의확률로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R²값¹⁴⁾은 각각 48.6%, 34.1%, 51.1%로 나타났고,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값은 46, 26, 49 으로 나타나서 모형의 적합정도에는 이상이 없으며, 모형의 유의성을 나타내는 p-값¹⁵⁾은 모두 <0.01로 나타났다.

[표IV-11] 전체 직무교육이 창업 및 재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¹⁶⁾

독립 변수	종속변수								
	창업의지			재취업의지			창업 및 재취업 전체의지		
	계수 추정값	t통계량	VIF	계수 추정값	t통계량	VIF	계수 추정값	t통계량	VIF
α_0	0.088	0.772	.	0.088	0.772	.	0.146	1.482	.
전체 직무교육	0.621	6.814***	1.484	0.603	5.134***	1.358	0.705	7.001***	1.437
수정R ²	48.6%			34.1%			51.1%		
F-값	46.424			26.353			49.008		
p-값	<0.01			<0.01			<0.01		

또한 모든 분석에서 분산팽창계수(VIF)는 1.357~1.484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¹⁷⁾이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 14) 수정R²계수는 표본관측으로 추정된 회귀선이 실제로 관측된 표본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고 있는가, 즉 회귀선이 실제 관측치를 어느 정도 대표하여 그 적합성(goodness of fit)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계수로서 0과 1사이의 값을가지게되고 R² =1 일 경우 추정 회귀선이 변수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설명해 주고 있음을 의미하고 0인 경우 추정된 회귀선이 변수 사이의 관계를 전혀 설명해 주지 못함을 의미함.
- 15) P-Value란 관찰된 데이터의 검정통계량이 귀무가설을 지지하는 정도를 확률로서 귀무가설이 옳다는 가정 하에 얻어진 검정통계량보다 더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확률이므로 P-Value가 작을수록 귀무가설을 지지하는 정도가 약하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며, P-Value가 클수록 귀무가설을 지지하는 정도가 커짐으로 귀무가설을 채택하게 됨.
- 16) * : 10% 유의수준, ** : 5% 유의수준, *** : 1% 유의수준
- 17)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들 간에 강한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으로 독립변수들간에 높은 선형 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증으로 사용하는것으로서 회귀분석의 전체 가정을 위배하는 것이므로 결정계수 R2값은 높아 회귀식의 설명력은 높지만 식안의 독립변수의 P-value값이 커서 개별 인자들이 유의하지 않는 경우 독립변수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구하여 다시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를 구하여 이 값이 10을 넘는다면 보통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음.

전체 직무교육이 창업 및 재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경력단절여성에게의 직무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창업에 대한 의지 및 재취업에 대한 의지는 향상된다고 할 수 있다. 종속변수, 즉 전체 창업 및 재취업의지가 양(+)의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직무교육을 받았을 때 창업의지는 0.621단위로 증가하고 재취업의지는 0.603단위로 증가하지만 전체적인 의지는 0.705단위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전체적인 직무교육의 만족도가 향상될수록 경력단절여성의 전체적인 창업 및 재취업의지는 유의적으로 향상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에게의 창업교육과 회계세법교육 사무자동화교육이 노동시장으로의 복귀요인 중 창업과 재취업의 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침으로서 장기적이고 안정화된 분야로의 복귀수요를 나타내고 있다.

나. 개별 직무교육의 영향

[표IV-12] 개별 직무교육이 창업 및 재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독립 변수	종속변수								
	창업의지			재취업의지			창업 및 재취업 전체의지		
	계수 추정값	t통계량	VIF	계수 추정값	t통계량	VIF	계수 추정값	t통계량	VIF
α_0	0.171	2.085		0.088	0.772		0.163	1.708	
창업 교육	0.541	5.748***	1.384	0.345	2.558**	1.285	0.496	4.554***	1.337
회계 세법	0.166	1.430	2.001	0.206	1.287	1.965	0.232	1.747*	1.925
사무 자동화	0.065	0.592	1.776	0.194	1.223	1.793	0.143	1.134	1.713
수정R ²	58.7%			32.5%			54.9%		
F-값	23.708			8.872			19.685		
p-값	<0.01			<0.01			<0.01		

[표IV-12]는 개별 직무교육이 창업 및 재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모든 회귀분석에서 전체 직무교육이 종속변수인 창업 및 재취업의지에 매우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

계량은 모든 종속변수에서 1% 유의확률로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 R^2 값은 각각 58.7%, 32.5%, 54.9%로 나타났고,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값은 각각 23, 8, 19 이어서 모형의 적합정도에는 이상이 없으며, 모형의 유의성을 나타내는 p-값은 모두 <0.01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분석에서 분산팽창계수(VIF)는 1.285~2.001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경력단절여성에의 개별직무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창업에 대한 의지 및 재취업에 대한 의지는 향상된다고 할 수 있다.

종속변수를 창업의지로 하였을 때, 창업지원교육 만족도가 높을수록 창업의지는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창업지원교육 만족도의 한 단위 수준이 향상될수록 경력단절여성의 창업의지는 0.541단위만큼 유의하게 증가하지만, 회계세법교육 및 사무자동화교육은 창업의지와 통계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경력단절여성의 창업의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창업지원교육인 것으로 판단된다.

종속변수를 재취업의지로 하였을 때, 창업지원교육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취업의지는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창업지원교육 만족도의 한 단위수준이 향상될수록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의지는 0.345단위만큼 유의하게 증가하지만, 회계세법교육 및 사무자동화교육은 재취업의지와 통계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의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도 창업지원교육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종속변수를 창업 및 재취업 전체의지로 하였을 때, 창업지원교육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취업의지는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창업지원교육 만족도의 한 단위수준이 증가될수록 1% 유의수준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및 재취업의지가 0.496단위만큼 민감하게 증가하게 되지만, 회계세법교육 및 사무자동화교육은 10%의 유의수준에서 0.232만큼 덜 민감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세법의 교육이 창업과 재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여전히 경력단절여성에게는 필요한 직무교육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창업교육과 회계세무교육 만족도는 창업 및 재취업 전체의지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자동화교육은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및 재취업의

지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개별직무교육을 독립변수로 보고 종속변수를 각각 창업의지, 재취업의지, 창업 및 재취업의 의지로 보았을 때, 개별직무교육의 변수 중에서도 창업교육이 여전히 각각 창업의지, 재취업의지, 창업 및 재취업의지에 유의적인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회계세법교육은 전체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력단절여성의 창업지원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창업과 재취업의지는 향상된다고 하는 것은 경력단절여성에게 창업과 재취업에 있어서 창업직무교육이 장래의 창업과 가족창업을 대비한 밑거름이 되는 교육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결과의 종합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창업지원교육 및 회계세무교육 등의 만족도가 향상될수록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및 재취업의지는 유의적으로 향상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의 직무교육 만족도는 창업 및 재취업의지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가설은 지지된다고 할 수 있다.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의 직무교육 중 창업관련 직무교육, 회계세법관련 직무교육, 사무자동화관련 직무교육 등의 요인분석과 이로 인한 창업의지, 재취업의지, 창업과 재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의 직무교육의 성과와 관련된 다양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의의가 있었다.

본 연구는 여러 선행문헌들을 고찰하여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으로의 복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였고, 특히 재무관련 직무교육이 창업의지와 재취업의지를 고취시키는 데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으로의 복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 사업 분야가 어느 것인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으로의 복귀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 중 제도적인 부분, 사회구조적인 부분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협업화 조직의 태동 및 활성화방안이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으로의 복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하여 요인과 성과간의 매개변수로 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연구가설에 제시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직무교육을 수강한 경력단절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창업교육은 창업의지, 재취업의지와 전체의지에, 회계세법교육은 전체의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직무교육전체는 창업의지, 재취업의지, 전체의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및 재취업의지에 직무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였고, 특히, 창업지원교육과 회계세무교육이 경력단절여성의 전체적인 창업 및 재취업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력단절여성의 창업사유는 높은 수익이나 사회적인 성공보다는 장기적인 근무형태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평소 경력단절여성이 느끼는 직장 내에서의 남녀 간의 임금의 차이라든가 근속년수의 차이로 근무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남성보다는 훨씬 낮게 나타남으로 인해 경력단절이후의 노동시장으로의 복귀 시에는 장기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원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사유는 안정된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즉, 경력단절이후의 결혼·출산·육아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사회적인 장기불황이 더해져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 이어서 사회적인 소속감과 장기적인 직업소유에 대한 기대가 많았다. 이는 경력단절여성의 안정된 직장으로의 복귀를 희망하는 것과 함께 사회적으로는 경력단절후의 남녀임금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창업관련, 회계세법관련, 사무자동화관련 직무교육이 창업의지와 재취업의지에 바로 영향을 미쳐서, 위의 직무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창업과 재취업의지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경력단절여성이 취업탐색을 위한 노력이 상당하지만 전문적이거나 차별화된 지식이 경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좀 더 숙련되고 전문화된 기술을 습득하려는 경력단절여성의 욕구가 충만하다는 것이다. 여성스스로가 개인적인 역량습득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사회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직무능력을 높여나갈 수 있는 교육기회와 좀더 세심한 프로그램의 육성이 필요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창업과 재취업을 기대하는 경력단절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은 창업교육으로서 이는 당장의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의미하는 것과 함께, 차후에 있을 가족과의 결합형태의 확대가족창업과 동료와의 협업을 통한 조합형태의 창업 시에도 필요한 제반 절차 및 자금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는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이상으로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범사회적으로 경력단절여성에게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협업화 조직으로 확대창업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추진, 강화할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연구모형과 변수설정 등을 위하여 여러 방법으로 선행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단절여성과 관련된 여러 선행문헌들을 조사하였으나 직무 교육 시 직접적인 영향과 효과와의 관계를 연구한 자료는 거의 조사되지 않아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충분한 선행연구 분석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연구가설에서 제시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직무교육을 받은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설문문을 통한 분석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일부 직무교육이 창업과 재취업의 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전체 직무교육 또한 전체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사무자동화교육이 창업이나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영향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사용한 표본수가 조금 부족하여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표본을 이용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에서 거주하는 경력단절여성에서 전국으로 그 표본을 확대해나간다면 좀 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창업의지나 재취업의지만을 최종목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창업이나 재취업 후의 일정기간동안 직무교육이 어떠한 형태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측정을 하지 못한 것이 연구의 한계점이며,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성과변수를 다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를 포함하여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변화해 나가는 노동시장의 형태에 여성인력이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하는가에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경애(2007), “여성 창업교육과 외식사업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경영대학원
- 김영옥 외(2007),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이탈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인선(2005), “경력단절 여성 경력지원프로그램의 효과연구-서울지역14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중심으로” 한국항공대학교 경영연구소
- 김주영(2010), “여성의 경력단절과 노동시장 재진입”, 월간노동리뷰 2010년8월호 36-50
- 김지경·조유현(2004), “젊은 기혼여성의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에 관한 분석”, 노동경제논집, 제26권 제3호, pp.181-207
- 민무숙(2006), “여성의 경력단절과 재취업:원인과 진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47-50
- 민현주(2009), “여성의 생애단계별 경력단절 경험과 재취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효진·은선경(2012), “경력단절 경험을 가진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의 일-가족양립 정책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회, 2012
- 백효정(2011), “여성창업 및 고용촉진제도가 창업동기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기혼여성의 창업시장 확대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 서울여성능력개발원(2013), “보도자료”, 2013년 7월 2일
- 송영중(2013),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역할” TheHRDreview, 2013년9월호 pp.2-12
- 성지미(2002), “여성의 자영업 결정요인과 경력단절 가능성”, 『노동경제논집』, 제25권제1호
- 안상철(2011), “창업여성CEO의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밭대학

교 창업경영대학원

여성가족부, “여성인력 관련 주요통계” 여성가족부, 2013.10

오은진 외(2010), “경력단절여성 적합 녹색직종 및 교육과정 개발”, 한국정책연구
연구원

오은진(2009),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성공요인 및 경로분석”, 한국정책연구연
구원

윤방섭(2004), “창업 의지의 결정요인: 개인특성 및 환경요인”, 한국산학경영학회

임희정(2009),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기업의 인사관리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인원 외(2012), “서울시 기업체에 있어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방안
및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127-155

이태야(2010), “여성의 지원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대학원

이학식, 『SPSS 20.0과학 조사방법론』, 집현전, 2013

장서영 외(2007),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개발 연구보고서”, 한국고용정
보원

장서영·안선영(2008),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과정에 관한 질
적 연구”, 여성연구, Vol. 74 No. 1 pp. 79-104

조연숙 외(2010),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업교육훈련 분류체계 수립 및 관리방안연
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조순일(2009),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관한 연구-고학력여성을 중심
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주희진(2000), “여성의기업활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통계청(2006), “사회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한국여성개발원(2008), 『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개발원

2. 해외문헌

Barrow, L. (1999), “An Analysis of Women’s Return-To-Work Decisions
Following First Birth”, Economic Inquiry, 37(3), pp.432-451

- Becker, G. S.(1975),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Blau, D. & Robins, P.(1989), “Fertility, Employment, and Child-Care Costs. Demography”, pp.26, 287-299
- Connelly, R. (1992), “The Effect of Child Care Costs on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pp.74, 83-90
- Glaser, B. and Strauss, A.(1968),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Weidenfeld and Nicholson
- Heckman, J. J.(1974), “Life-cycle consumption and labor supply: an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consumption over the life cycl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64, pp. 188-194
- Jang, S. Y. and Merriam, S.(2005) “Korean culture and the reentry motivations of university women”, Adult Education Quarterly, pp. 23-51
- Johnes, G. (1999), “Schooling, Fertility and the Labour Market Experience of Married Women, Applied Econometrics”, pp.31, 585-592
- Klerman, J. A. & Leibowitz, A. (1990), “Child Care and Women’s Return to Work After Childbirth. American Economics Review, Nashville, pp.284-290

3. 주요 사이트

http://www.imf.org	국제통화기금
http://kostat.go.kr/	통계청
http://kosis.kr/	국가통계포털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설 문 지 】

안녕하십니까?

귀하와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 대학원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직무교육이 창업과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 재무분야의 직무교육을 중심으로 -”을 주제로 석사학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경력단절여성의 직무교육(특히 재무관련교육)이 창업과 재취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비밀을 유지하고 통계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며, 본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귀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은 모두 귀중한 연구자료로 이용 될 것이므로 부디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의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귀하가 느끼시는 바를 그대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조사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13. . .

연 구 자 :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 대학원 석사과정 박 기 인

연 락 처 : 010-9007-4800

` kiinpark77@gmail.com



개별항목의 질문

1. 아래의 실제 교육을 참가하셨거나 수업중에 들으신 항목 모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창업지원교육 ② 회계세법교육 ③ 사무자동화교육(한글,워드,엑셀,PPT등)

2. 다음은 위의 개별항목에 대한 주제별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해 본인이 느끼신 바에 따라 5단계로 응답해주시시오.

①전혀아니다 - ②아니다 - ③보통이다 - ④그렇다 - ⑤매우 그렇다

구분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창업 지원 교육	1	창업지원교육은 창업진로선택 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	창업지원교육을 통해 기업가적인 마인드 를 형성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3	창업지원교육을 통해 창업절차 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4	창업지원교육을 통해 창업지원제도 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회계 세법 교육	5	회계세법교육을 통해 업무에 대한 충분한 정보 를 획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6	회계세법교육을 통해 업무의 불안감 해소 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7	회계세법교육을 통해 업무프로세스 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8	회계세법교육을 통해 업무역량 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사무 자동화 교육	9	사무자동화교육을 통해 업무에 대한 정보 를 획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0	사무자동화교육을 통해 업무의 불안감 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1	사무자동화교육을 통해 업무프로세스 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2	사무자동화교육을 통해 업무역량 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II

전체항목의 질문

※ 다음은 전체 직무교육의 효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분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창 업	13 위의 직무교육을 통해 <u>창업전반사항을 충분히 이해</u>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4 위의 직무교육으로 <u>창업에 도움</u> 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5 위의 직무교육을 통해 <u>창업에 자신감</u> 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16 위의 직무교육을 통해 <u>창업에 대한 동기부여</u> 가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7 위의 직무교육을 통해 <u>창업에 대한 비전과 목표설</u> 정이 확실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재 취 업	18 위의 직무교육을 통해 <u>재취업전반사항을 충분히 이</u> 해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9 위의 직무교육으로 <u>재취업에 도움</u> 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0 위의 직무교육을 통해 <u>재취업에 자신감</u> 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21 위의 직무교육을 통해 <u>재취업에 대한 동기부여</u> 가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2 위의 직무교육을 통해 <u>재취업에 대한 비전과 목표</u> 설정이 확실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

※ 다음은 일반적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해당되는 사항에 $\sqrt{\quad}$ 표를 표기하여 주십시오)

23. 귀하는 취업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24. 취업경험이 있으시면 총 근무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 ① 5년미만 ② 5년 이상~10년 미만 ③ 10년 이상~20년 미만
④ 20년 이상~30년 미만 ⑤ 30년 이상

25. 취업당시 어떤 직종에 근무하셨습니까?

- ①영업직 ②사무직 ③서비스직 ④기술생산직 ⑤전문직 ⑥기타

26. 퇴사를 하셨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중복 $\sqrt{\text{표}}$ 가능)

- ① 결혼 ② 출산 ③ 자녀양육 ④ 가족의 반대 ⑤ 저임금 ⑥ 학업
⑦ 기타 ()

27. 창업을 하고자 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 $\sqrt{\quad}$ 표 가능)

- ① 나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싶어서
- ②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 ③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어서
- ④ 나의 전문영역을 넓히고 싶어서
- ⑤ 오랫동안 일을 하고 싶어서
- ⑥ 기타()

28. 재취업을 원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중복 $\sqrt{\text{표}}$ 가능)

- ①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 ② 사회적으로 소속감이 필요해서
- ③ 나의 전 직장의 경험을 살리고 싶어서
- ④ 새로운 영역으로의 도전기회일 것 같아서
- ⑤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 ⑥ 기타()

29.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세 미만 ② 20세 이상 ~ 30세 미만 ③ 30세 이상 ~ 40세 미만
④ 40세 이상 ~ 50세 미만 ⑤ 50세 이상

30.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 졸 이상

◆ 본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areer-Interrupted Women's Job Training on Business Start-up and Re-Employment

- With focus on job training about business start-up, financial affairs, office automation -

Park, Ki In

Major in Management Consulting

Dept. of Knowledge Service & Consulting

Graduate School of Knowledge Service Consulting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is aimed at inquiring into what influential factors have on career-interrupted women's business start-up and re-employment result by analyzing the influential factors through business job training, especially with focus on start-up-related education, accounting & tax-law, and office automation training among the influences on career-interrupted women's business start-up and re-employment.

On the basis of the preceding literature on career-interrupted women's return to society, this study confirmed what factors have an influence on their return to

the labor market, and what influence such factors have on their result when business start-up and re-employment become revitalized through job training using the survey-based socio-demographical method. This study categorized this research-used result determinants as business start-up-related job training, accounting & tax law-related job training, office automation-related job training, and measured the result of these categories based on the volition for business start-up and volition for re-employment.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he more the satisfaction with business start-up support education and accounting & tax law education improves, the more career-interrupted women's volition for business start-up and re-employment improves. Accordingly, this study grasped that career-interrupted women's job training satisfaction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business start-up and re-employment. Likewise, this study suggested empirical evidence that job training carries out a vital role in career-interrupted women's business start-up and re-employment. Particularly,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in the analysis of diverse influential factors related to career-interrupted women's return to society by offering an implication that start-up support education and accounting & tax law education has an effect on the career-interrupted women's general start-up and re-employment with weight.